
		<h1>보도자료</h1>			
		배포일시	2019. 2. 15(금) 총 3매(본문3)		
담당 부서	시설안전과	담당자	• 과장 김태곤, 사무관 김정중, 주무관 백동현 • ☎ (044) 201-4598, 3581, 4172		
보도일시		2019년 2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7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토교통부, 노후 SOC 및 건축물 3,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(61일간)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, 터널, 철도, 댐, 항공, 건축,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,792개소에 대한 ‘2019년 국가안전대진단’에 나선다
- 이에 앞서 15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지방국토청장, 산하기관 부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- 국토교통부는 도로반·철도반·항공반·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,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·철도공단·한국공항공사·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(‘18.12.8.),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(‘18.12.12.)와 관련한 철도 전기·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었으며
-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, 터널, 철도, 항공시설 등 노후 SOC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.

< 국토교통 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현황 >

분야	계	도로	철도	하천	항공	건축	주택
종류	3,792	교량, 터널, 사면, 옹벽, 공사장 등	교량, 터널, 역사, 승강기, 전기시설, 공사장 등	배수시설, 제방, 보	공항시설	건축물 (3층 미지정)	공동주택, 공사장 등
개수		2,543개소	749개소	92개소	15공항	112개소	281개소

- 특히,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.
- 아울러,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 사고(18.12.12.)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,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(인터뷰)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,
 - 이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,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,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,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, 그 외에도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.

-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“안전점검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·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할 것”을 지시했다.
- 또한, 국토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“기관장들도 안전대진단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, 공공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작업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”을 당부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진단결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정중 사무관(☎ 044-201-358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